

광산구, 100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추진

광산사랑상품권(가칭) 추진 중 9월 중 예정...10% 할인율 적용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역 소비 촉진, 선순환 상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광산사랑상품권(가칭) 발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돕는 방안으로 지역화폐 도입에 나섰다.

앞서 관련 조례(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광산구는 5월부터 관계 부서가 참여한 특별업무팀(TF)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가칭 ‘광산사랑상품권’ 발행 준비에 들어갔다.

‘광산사랑상품권’은 9월 중 1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 스마트폰에 등록해 쓸 수 있는 정보무늬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한다.

10% 할인율을 적용하며,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광산구는 ‘광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7월4일 오후 6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한다.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1인당 1건의 명칭만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에 접수된 명칭 제안은 사전 심사, 7월 중누리집 선호도 조사, 특별업무팀 최종 심사를 거쳐게 된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 1명 50만원,

우수상 1명 30만원, 장려상 10명 각 2만원 등 상금을 지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며 “새롭게 발행할 지역화폐가 광산구만의 정체성, 차별화된 상표 가치를 담은 멋진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동구,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사회복지 급식시설 대상 진행

광주광역시 동구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급식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 동구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사회복지 급식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되고, 점검 항목은 △식품 위생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구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 씻기 △식재료·조리도구 세척·소독 △식품 보관 온도 준수 △조리도구 구분 사용 △물 끓여먹기 △육류·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를 당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여름철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선제적인 예방 점검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가정에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광산구, 장마 대비 상황 점검 비상 연락 체계 구축·예찰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장마철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회의와 재해 취약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산구는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 조치와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부서별 상황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도로 및 전통신장 빗물받이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 시설 차단시설 물 △저수지, 배수로 등 수리시설 △산사태취약지역(47개소) △대형 공사장(5개소) △급경사지(49개소) △수방 자재 대비 등이 진행됐다.

또한 광산구는 장마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수·하천 시설 관련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탄력적 인력운영과 현장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사전점검과 예찰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철 기자



서구, 제6회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플로어볼대회 개최

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제6회 광주 서구청장배 생활체육 플로어볼대회 참가자들이 22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북구,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 첫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15명 모집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책으로 기록할 수 있는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을 추진한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 인생의 회고·성찰과 치유’라는 주제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작성 경험을 제공해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북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북구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는 자로 자서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최종 출판기념회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 모집은 먼저 이달 27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하고 7월 중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정해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해

최종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이후에는 북구 행복여울림센터와 광주문학관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서전 작성 방법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면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서전 원고를 합본해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중에는 어르신들의 삶이 담긴 자서전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를 광주문학관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행복했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품격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남구, 장난감도서관 대여 현황 서비스 도입

광주광역시 남구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내 2곳의 장난감도서관 물품 현황과 대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5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구립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각종 정보를 담은 데이터 업로드 작업을 최근에 마무리 지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내 장난감도서관 2곳의 물품 보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장난감 대여 가능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장난감도서관의 위치와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 연결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복지정보 메뉴에서 여성·아동복지 장난감도서관 코너를 누르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여를 희망하는 장난감을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대여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온누리 30% 할인 페스타 서구 금호1동, 7월4일까지 매주 금요일 먹자골목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호페스타’를 개최한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서구 전역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맞물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홍보와 골목상권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호1동은 ‘불타는 금요일엔 금호일동으로!’를 주제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4일까지 매주 금요일 먹자골목 일대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먹자골목 상가 22개소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QR로 결제할 경우 기본적으로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과 사용금액의 10% 환급 혜택을 받고 상가들의 자체 할인까지 더해져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호페스타 참여 상가는 △1988 계절포차 △남도명가 △다온계절맛집 △담다 △도마 △심야식당61 금호직영점 △어촌바다장어 △옛날팔죽 △오모트 △오징어나라 △유진정 △인생돼지 △장수갈비 △장수육갈비 △정인초밥 △정향우육익금호점 △카페로 △카페마리 △코끼리아구집 △틸보네 바다장어 △호남식육식당 △희뜨는마을 총 22개 업소이다.

또 축제 마지막 날인 7월4일에는 먹자골목 일원에서 디제이파티와 함께 축제 기간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열린다.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금호페스타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금호1동만의 자생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